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the Ukrain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송금영

지난 3년 10개월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주도의 탈냉전 체제 붕괴와 러-서구 간 대립 심화는 물론 러-북 관계 밀착 등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첫째는 러-북 동맹 관계의 복원이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2024년 6월 북한을 방문하여 러-북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신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러-북은 1961년 체결된 조-소우호협력 조약과 유사한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하였다.

북한은 신조약에 따라 2024.11월-2025.4월까지 1만 4천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였다. 만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러시아는 북한군 포함 7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Kursk) 지역을 2025년 4월 탈환하였다.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북한은 무기 수출과 병력 파견 대가로 러시아산 첨단 군사기술을 도입하게 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확보하였다. 북한은 경제적 난국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 자국 무기의 성능 개선 등 군사력을 현대화하였다.

둘째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었고 남-북한 분단이 보다 고착화되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여 수십회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전력을 고도화하였으며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였다.

셋째 2008년 체결된 한-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동결되었다. 한국이 2022년 서구의 대러 제재조치에 참가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였다. 한-러 간 항공노선이 중단되었고 무역도 급감하였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북 간 동맹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외교적 고립 탈피 등 수혜국이 되었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은 반서구 공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서구 간 대립이 지속되는 한 러-북 밀착은 계속될 것이다. 당분간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한-러 관계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금영은 동아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주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근무했으며, 2018년 주탄자니아 대사로 퇴임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 <유라시아를 정복한 유목민 이야기>, <아프리카 깊이 읽기>가 있다.

일시: 2025년 12월 9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4호